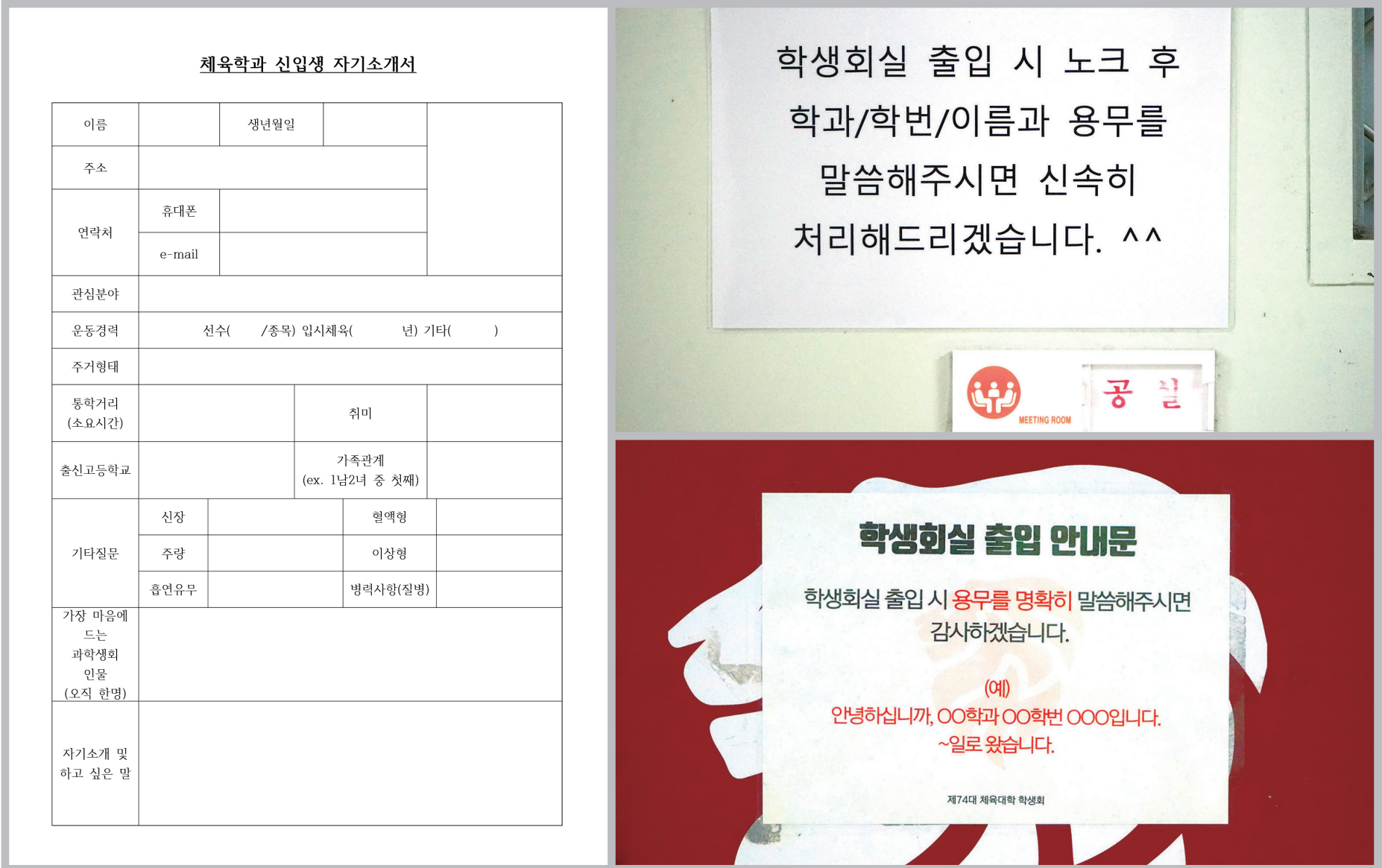


6 기획-체육대학 부소리



체육학과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었다. 학생회실 문에는 출입요령이 부착돼있다.

(사진1=체육학과 학생 제공, 사진2,3=강민성 기자)

체대 학장 “개인정보 굳이 필요 없어, 조치 취할 것” 복장·신발 규제, 관등성명 문화도 살펴봐야

▶1면 '체육학과 자기소개서'에서 이어짐
우리학교 체대는 군대식 문화에서 비롯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14년에 발생했다.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60년 전통의 K대학교 체대 실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수원에 있는 K대에 다닌다고 밝힌 글쓴이는 “대다수 동기들은 체대 내 군기를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음 학번들이 부당한 규정을 강요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는 체육학과 내 28가지 규칙, 선후배들 간 대화가 오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본이 함께 게재됐다. 이어 글쓴이는 자신이 직접 기합을 당했고 폭언·구타 등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서술했다. 본문에 제시된 몇 가지 핵심어로 인해 글쓴이의 학교가 우리학교임은 자연스럽게 기정사실이 됐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16년에 다시 발생했다. 단체운동 중 이탈한 학생에게 태권도학과 학생회장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후에는 폭행 사건이 대내외적으로 고발되지는 않았으나, '체대 문화'로 고초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역사와 전통이라는 이름아래 체대 내 부조리와 군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지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학과사무실에 출입요령 부착 관등성명과 특정 복장 강요 문화인가 부조리인가

체대 내 인사 강요와 관등성명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체대 학과사무실과 학생회실은 출입 요령을 출입문에 부착해뒀다. 부착된 안내문의 내용은 “학생회실 출입 시 용무를 명확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00학과 00학번 000입니다. ~일로 왔습

니다”이다. 체대 내 모든 학과 학생회실에도 학과, 학번, 성명을 대고 용무를 말해달라는 출입 요령이 부착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체대 학생들은 강한 반감을 표했다. 체대 재학생 B 씨는 “관등성명과 관련된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학과사무실이나 학생회실에 가야 하는 일이 있어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체대 재학생 C 씨는 “체대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군대식으로 출입 시 관등성명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스포츠지도학과 학생회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전시연(스포츠지도학 2020) 씨는 과방 출입 시 강요되어온 관등성명 절차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최 회장은 “학생회실을 찾는 이유는 휴게 목적 아니면 물품 대여 등 도움이 필요해서일 텐데, 누가 어떤 용무로 방문했는지 알아야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다”며 “이

런 것이 부조리 등으로 오해를 받는 것 같아 안타깝고, 강요 또한 없다”라고 설명했다. 체대 학과사무실 역시 “학과 사무실에 모든 학과가 같이 있다”며 “많은 학생들이 물리는 경우가 있고, 빠른 업무처리와 안내를 위해 부착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압적으로 시키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선후배 사이에서 관등성명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선후배 간 관등성명의 경우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관례로 여겨지기 때문에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관등성명을 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체대 학생들의 입장이다.

관등성명은 특히 술자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후배가 대어 등 도움이 필요해서일 텐데, 누가 어떤 용무로 방문했는지 알아야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다”며 “이

것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대도 아니고, 학교에서 관등성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위계질서가 형성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술을 받을 때마다 관등성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술을 마실 때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체대 내에는 복장과 관련한 규제가 암암리에 자리 잡혀 있었다. ▲체대 건물 내에서 슬리퍼 착용 금지 ▲수업 시간에 슬리퍼, 모자 착용 금지 등은 체대 내에서 대수롭지 않은 상황들이다.

특정 의복을 입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초 스포츠지도학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개강 총회 복장과 관련 공지가 올라왔다. 해당 공지는 “개강총회는 교수님들도 오는 자리이니 예의를 갖춰 최



체육대학 내에서는 슬리퍼 착용 금지가 일종의 규칙이 돼있었다.

(사진=대학주보 DB)

은 블라우스와 같은 단색 계열의 복장으로 입고, 절대 추리닝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스포츠지도학과 학생회 공태현(스포츠지도학 2017)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몇 년 만에 열리는 개강 총회였고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시는 자리였다”며 “추리닝이나 슬리퍼 등을 착용하고 참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복장 공지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것이 체대만의 문화이거나 내려오는 관습은 전혀 아니다”며 “나 역시 체대만의 문화를 경험했고 그것을 싫어하고 바꾸고자 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고 덧붙였다.

체대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타 단과대학 학생들은 대체로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 체대가 위치한 국제캠퍼스 생명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20학번 K 씨는 “학교를 돌아다니며 체대 학생들을 마주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관등성명, 복장 규제 등이 학교 내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솔직히 불편하다”고 전했다.

체육대학 교수들 체대 분위기에 한 몫 한다는 의견도 존재

이 같은 체대만의 분위기는 체대 교수들의 영향 때문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제보된 증언에 따르면, 체대 교수들은 수업 시간에 모자와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체대 C 교수는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수업 시간에 모자와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며 “모자와 슬리퍼 착용을 철저히 금

한다”고 공지했다. 체대의 특성상 실기 수업이 많은 것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실기를 하지 않는 이론 수업에도 슬리퍼를 금지하는 교수들이 상당수다. 체대 재학생 D 씨는 “실기수업에서는 당연히 운동화를 착용하는 게 맞지만, 이론 수업에서도 슬리퍼, 더 나아가 모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며 “교수님들이 나서서 슬리퍼 착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 선배 학번들도 슬리퍼 착용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정 학번 선배는 슬리퍼 착용을 그냥 예의 없는 애라고 단정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일부 교수들은 체대 건물 내에서 슬리퍼 착용을 일절 금지하기도 한다. 체대 재학생 E 씨는 “슬리퍼를 신고 체대 건물을 돌아다니다가 교수님을 마주치면 멈춰서 욕을 먹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체대 건물 내 슬리퍼 착용 금지가 일종의 규칙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체대 학생들은 학과 잡바를 입고 교수를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 하며 체대 내 특정 학과 학생들은 체대 건물 내에서 일명 ‘다나까’를 쓰기도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체대 교과목의 성적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체육학과 전공필수 과목인 ‘야영과 힐링’ 수업은 주말에 진행되는 캠프 수업이다.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평가 방법은 출석 50%, 기타 50%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실기와 같은 수행평가는 없다. 기타 항목의 평가 기준도 따로 기재된 바가 없다.

해당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평가 방법의 모호함과 함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평가 방법의

모호함 속에서 일부 학생들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해당 수업을 수강했던 체육학과 E 씨는 “캠핑만 하는 수업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다”며 “교수님, 조교와 친분이 있거나 학생회인 친구들이 유독 성적을 잘 받아 간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강의평에도 “그냥 친분 있는 학생만 A+를 준 것 같다”, “성적은 기본 예제(A-), 학생회 에이벌(A+)?”, “성적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며 친분대로 성적 준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E 씨는 “평가 기준의 모호함 속에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교수님과 친분이 쌓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분위기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신문은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야영과 힐링’을 담당하는 한광영(체육학) 교수는 우리신문의 취재 요청 이후 해당 강의에서 “예전 같았으면 대학주보에 제보한 익명의 학생들을 찾아 족쳤겠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어쩔 수가 없다”며 “성적 평가는 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함부로 점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학장은 계속해서 ‘체대만의 문화’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체대의 특성상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했

다. 송 학장은 “체대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며 “종종마다 룰이 있고, 룰은 꼭 지켜야 하는 법이 적을 부여했으며 성적은 가능한 학생 중심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교들의 객관적인 자료’가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체육학과 F 씨는 “애당초 시험도 없고, 2학 3일 캠핑을 가는 것이 다인데 어떻게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말만 할 것 이 아니라, 평가 기준을 제대로 알려줘야 하고 그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을 찾아

체대 학장, 복장관련 금지사항은 없다고 해명 태도의 중요성 강조

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체대 송 중국 학장은 상술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체대 내의 복장과 관련해 송 학장은 “권유를 하는 것일 뿐 금지사항은 아니다”며 “내 수업에서 모자를 써도 상관 없지만 교수마다 제한이 있을 수 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슬리퍼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슬리퍼를 신어도 조용히 신으면 상관 없이 없는 데 끌고 다니거나 하면 좀 그렇다”며 “다만 착용한다고 해서 되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석야, 운동화 좀 신어라’ 등으로 가

능하면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등성명과 인사 강요에 대해서는 “과거엔 어쨌지만 몰라도 지금은 절대 그런 것이 없다”며 “나 역시도 조교랑 직원분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송 학장은 체대 학생 사회에서 사용되는 관등성명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송 학장은 성적평가 기준이 모호한 것에 대해 일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 학장은 “일부 수업은 그럴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난주에 교강사 면담을 했고, 성적평가를 투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성적 평가는 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함부로 점

송 학장은 계속해서 ‘체대만의 문화’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체대의 특성상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송 학장은 “체대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며 “종종마다 룰이 있고, 룰은 꼭 지켜야 하는 법이 적을 부여했으며 성적은 가능한 학생 중심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교들의 객관적인 자료’가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된 것인지는

다”며 “실제로 대다수의 교직원 분들이 체대 출신 조교들을 칭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대 단과대 차원 노력 필요 2014년 학장, 모든 신입생 면담

지난 2014년 군기와 관련된 곤욕을 치른 체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체대 학생회는 학내 규정에 대해 지켜나가야 할 부분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다나까’ 용법과 관등성명은 체대의 전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켜나가되, 파마나 염색, 화장 등 용모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단과대학 차원의 조치도 이어졌다. 당시 체대 전악기(태권도학) 학장은 신입생 전원과 면담을 가졌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이 바뀌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과별 행동강령의 구전 ▲전통과 안전의 명목으로 이를 곡해해 후배들에게 군기를 강요한 점이 사실로 밝혀졌고, 학생 상벌에 대한 체대 내규가 보편화됐다. 이후 체대 내에서 폭행과 폭언과 관련된 사건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다만 2014년 이후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당시 조치마저 현재 시각과 분명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적지 않은 체대 학생들이 전적으로 인정받던 문화들에 반감을 품고 있는 만큼, 체대는 선도적인 움직임을 취할 필요가 있다.

체대는 가시적인 문제에 대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송 학장은 체육학과에서 논란이 된 자기소개서에 대해 “개인정보인데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이상형, 마음에 드는 선배를 적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약 그것이 있었다면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에 학생회를 만나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문에 부착돼 있는 출입 요령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오늘 내용을 조교와 학과장과 다시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학장은 전체 학생과의 면담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학생 개개인과 면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 학장은 “학장실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성토해도 된다”며 “학생회, 과대표랑도 자주 만나고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듣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